제2회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

KAIST 미래전략대학원과 국회의정연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9월부터 12월까지 12주 간 '제2회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을 진행한다. 본 과정은 국회의원 및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대상으로 총 12회의 강의로 진행된다.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강의에도 불구하고 총 83명의 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이 수강한다. 수업은 60분의 강의와 30분간의 날카로운 질문과 적극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커져가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미래예측 · 비전 및 국가미래정책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인 평가 및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모방 · 추격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기술과 지식융합을 바탕으로 미래선도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장기전략과 대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법과 예산을 통해 만드는 곳이 바로 국회이고 과학기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곳이 바로 KAIST이다. 그래서 미래를 만드는 국회와 KAIST가 손을 잡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제2회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은 미래학 강의와 과학 · 기술, 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하여 국가미래비전에 대한 국회의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미래학 분야는 미래학 소개 및 3차원 미래예측법이 소개되었다. 과학 · 기술 분야는 사물인터넷, 자동차의 미래, 바이오 미래전략 등을 다루고, 경제 · 산업 분야는 에너지, 특허허브, 금융경제 미래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사회 · 문화 분야에서는 미디어와 SNS의 미래, 문화기술의 미래 및 헬스케어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 강의는 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SF